



1984년 인도 보팔 공장의 가스 폭발 사고는 가장 비극 사고 중 하나였습니다. 다우는 현재 마디아 프라데시 주정부가 관리하는 이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우는 이 비극적인 사고가 있고 16년 이상이 지난 후, 그리고 Union Carbide Corporation과 Union Carbide India, Limited가 4억 7,000만 달러의 지불 합의를 체결하고 인도 대법원이 이를 승인한지 10년이 지난 후 Union Carbide Corporation의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이 가스 폭발 사고에 관한 Union Carbide Corporation의 입장은 이 회사 웹사이트([www.unioncarbide.com/bhopal](http://www.unioncarbide.com/bhopal))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보팔 공장 폭발 사고에 관한 다우 케미칼의 성명서

1984년 12월 3일, 화학 업계 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고 중 하나가 인도 보팔에서 발생했습니다. 업계 종사자인 우리들은 Union Carbide India Limited가 소유 및 운영하는 공장에서 폭발한 가스에 노출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은 이 날을 너무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다우는 이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한 적이 없지만, 우리들 모두는 화학 업계의 타업체와 마찬가지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고, 이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국, 화학 업계는 보팔 사고의 교훈을 통해 공정 안전 기준, 비상 대비 절차, 지역사회 인식 등에 역점을 둔 책임 있는 배려(Responsible Care) 프로그램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우리는 근로자와 지역 사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립하는 등 업계 모범 사례 정착을 위해 정부의 규제 관련 부처와 협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우 기업은 보팔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세계 화학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 있는 배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앞장 서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은 물론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우 기업은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책임 있는 배려 정책을 구현할 것을 맹세하며 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팔에 관한 추가 정보:

이전의 보팔 공장은 인도 회사인 UCIL(Union Carbide India, Ltd.)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었으며, 이 회사는 Union Carbide Corporation, 인도 정부 및 개인 투자자와 지분을 공동 소유했습니다. Union Carbide는 1994년 UCIL 지분을 매각했으며, UCIL은 현재 인도의 주요 회사인 Eveready Industries India, Ltd.란 이름으로 회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보팔 소재 Union Carbide Corporation의 연혁 및 추가 정보를 보려면 [www.unioncarbide.com/bhopal](http://www.unioncarbide.com/bhopal)을 방문하십시오.

책임 있는 배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responsiblecare.com](http://www.responsiblecare.com) 또는 [www.icca-chem.org](http://www.icca-chem.org)를 방문하십시오..